

초산에틸, 10월 100달러 인상!

8월25일에도 톤당 100달러 인상 ... 수요기업 부담 가중될 듯

국내 유일한 EA(Ethyl Acetate) 생산기업인 한국알콜산업이 10월1일 EA 가격을 톤당 100달러 인상할 방침을 세우고 있어 수요기업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알콜산업은 EA 적정가격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100달러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수요기업들은 8월25일에도 EA를 100달러 인상했는데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가격을 인상시키는 것은 무리한 처사라며 맞서고 있다.

국내 EA 가격은 2003년 7-8월 톤당 450-460달러, 8월25일 가격인상 후 현재까지 톤당 550-560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2003년 10월 이후에는 톤당 650-660달러에 거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EA 국제가격은 2003년 3-8월까지 CFR SE Asia 톤당 480-500달러에 거래됐으며 9월 이후 현재까지 CFR SE Asia 톤당 570-60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EA는 페인트와 그라비아잉크, 점·접착제,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고 있고 국내 시장규모는 5만3000톤으로 추정된다. <배연호 기자>

<Chemical Journal 2003/10/07>